

치 사

불교미술을 통해 부처님의 온기를 널리 전하며 불교미술의 대중화에도 앞장서온 한국불교미술협회의 스물 여섯 번째 협회전 개최를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불교미술발전의 성취를 위해 진력하신 한국불교미술협회 여러분과 오늘을 빛내주시는 사부대중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교미술은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불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특유의 예술성은 감동과 환희로써 우리의 삶과 당당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교미술이 어렵고 소중한 까닭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지니는 동시에 종교적 가치와 상징성을 두루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영역을 저마다의 원력과 정진으로 표출하기에, 불교미술 작가들은 예술가이자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포교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개인의 작품 활동들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랜 진력으로 이루어낸 성취를 서로 나누고 함께 선보이고 있기에, 오늘의 전시는 깊은 원력과 신심을 마음 깊이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도량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미술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불심과 예술혼으로 정진하고 끊임없는 창조력으로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모색해 온 협회와 회원여러분의 활동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진력하신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리며, 작가들이 신심과 열
정이 이루어낸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
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